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였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미얀마] 외국계 은행의 직접 진출 가시화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 온 미얀마의 개혁 정책이 금융·보험업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최근 11개의 미얀마 민간 은행에 미국 달러화, 유로화 및 싱가포르 달러화 3종의 외환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2014년부터는 외국계 은행들이 미얀마에 합작 투자 형태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1963년 이후 민간에 허용되지 않았던 보험업에 대해서도 민간 보험사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미얀마에서는 종래 중앙은행 이외에 3곳의 국영은행이 있고 민간은행들도 다수 영업을 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내 예금 및 대출 업무 이외에 외환 거래, 신용장(LC) 개설 등의 업무는 국영은행인 미얀마투자상업은행(MICB)과 미얀마무역은행(MFTB)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달러화 송금 제재로 직접 달러화 송금이 불가능하고 업무 협약 관계에 있는 소수의 은행들과 장부 차감 방식에 의한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었다...(중략)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제868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